



원주 뮤지엄 산 명상관 ‘나를 발견하는 여행’ 안도 다다오 설계, 세계 첫 미술관 속 명상 공간

뮤지엄 산(관장 오광수)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신축 공간인 ‘명상관’을 오픈했다. 2013년 개관한 뮤지엄 산은 전체 길이 700m, 대지면적 7만1천172㎡ 규모로 조성된 미술관으로, 산상(山上)이라는 고유의 지형에 웰컴센터,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스톤가든, 제임스 터렐관으로 이어지는 건물과 예술 작품, 주변 자연의 어우러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뮤지엄 산은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풍부한 감성과 깊은 휴식공간으로서 미술관이 가진 명상적인 힘을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뮤지엄 산 관계자는 “2018년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로서 뮤지엄 산의 건축 철학에 대한 재고로 ‘명상관’ 신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톤 가든에 자리한 명상관은 132㎡ 면적의 돔 공간으로, 기존 정원과 조화롭게 설계됐으며 외부는 자연석으로 이뤄졌다. 내부로 들어 서면 중앙을 가르는 아치형 천장을 통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과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 ‘빛의 교회’를 연상시킨다.

안도 다다오는 “태양의 움직임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명상하는 이들의 정신은 자연과 우주를 만나 교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계 스토리를 뮤지엄 산에 전했다.

뮤지엄 산은 명상 전문가들과 함께 명상관에 어울리는 명상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해 30분 간격으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숲·여유·자연·소리·목소리·침묵 등 미술관이 제시하는 명상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일 웰컴센터에서 별도 입장권과 원하는 프로그램 시간을 예약한 뒤 입장할 수 있다.

오디오로 진행되는 상설 프로그램 외에도 인문, 예술, 신체활동 등을 동반한 스페셜 프로그램도 매월 선보이며 풍성한 휴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museumsan.org>)를 참조하면 된다.

☎ 033-730-9028



명상관 외부



명상관 스페셜 프로그램 마음 챙김 영상

시민이 행복한 도시 원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대한민국 누구나 다녀간 문화관광 1번지 원주
푸르고 건강한 삶의 연속, 어울림 복지의 최고 도시 원주,
꿈꾸는 도시 원주의 바람입니다.



원주시